

**What type of historian? Conceptual history and the history of concepts:
a complex legacy and a recent contribution**

Cesare Cuttica(2012)

Political Concepts and Time: New Approaches to Conceptual History. Edited by Javier Fernández Sebastián. Santander, Spain: Cantabria University Press-McGraw Hill, 2011. pp. xix, 442.에 대한 서평.

▷ *Political Concepts and Time*(이하 PCT)은 단어, 개념, 의미와 역사적 변화, 컨텍스트와 담론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 논쟁을 다루고, 이론과 실천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노력.

- 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책에서의 지성사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다루고자 함. 책에서 명시하는 역사가의 유형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그 방법론적 시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함. 과거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지성사자들은 ‘창의적 상상(creative imagination)’을 사용한다고 주장. 그리고 이러한 역사쓰기의 모델이 다양한 자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역사 기술(記述, historiography)들의 구분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함. 개념사와 지성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진전되어야 함.

▷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

- 해석적인 역사적 범주로서 가장 중요한 “언어와 시간”에 대해 다룸. 근대정치의 시간적 측면과 관련된 ‘우연(contingency)’과 ‘가속(acceleration)’에 초점을 두고 개념사의 지적성과를 다루고자 함. 권력, 이데올로기, 자아 등 근대성을 형성하는 개념들, 의미론적 변화, 과거를 독해하는 해석학적 도구로서 도상학(iconology)과 기억, 비교사와 문화사, 학제적, 초국가적 접근 등을 제시.

- 13개의 글, 3개 파트로 구성. Part I: *Conceptual History and Neighbouring Disciplines*, Part II: *Temporalizing Experiences and Concepts*, Part III: *On the Historical Semantics of Modern Times*.

- ‘합리화’ ‘근대화’ ‘진보’에 대한 모든 메타서사와 목적론적 경향성에 반대하는 ‘우연성’ ‘비결정성’ ‘취약성’ ‘개방성’을 제시(PCT 436). 개념사는 통시적, 공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정치적 변화와 의미론적 혁신의 복합적 관계를 조명하는 작업이며, 어떻게, 그리고 왜 특정 개념들이 발생, 발전하고 소멸하는지를 다룬다고 밝힘. 개념은 “변화의 요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의 “지표”로서 간주(PCT 5,210,426). 개념이 사회 속에서 화용론적, 의사소통적으로 적용될 때 “사고의 매개체”가 된다(PCT 35).

- 코젤렉의 근대성 이론이 탈맥락적으로 너무 포괄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함. 코젤렉이 제시한 메타개념으로서의 *Sattelzeit*(1750-1850)과 근대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의미론적 변화를 설정하는 시기분절화(temporalization), 이데올로기화(ideologiz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 정치화(politicization) 개념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대와 상이한 사회에서 발생한 근대화의 과정을 환원적으로 읽어낸다고 지적. 책에서는 이를 코젤렉적인 “작업가설”이라고 명명(PCT 210), 역사적 변화에 대해 사고할 때의 유용한 범주로서의 진리라고 간주하지 않음. 코젤렉이 개념이 “이론적 배열, 의미론적 장, 개념적 네트워크” 등 더 넓은 개념단위로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개념을 넘어 역사적 의미가 사회적 지식을 통해 구성되고 반대로 사회적 지식을 형성하는 다양한 포

괄적 측면을 발견하려는 시도 반영.

▷각 장의 소개

7장 Pim den Boer, “National Cultures, Transnational Concepts: Berrifsgeschichte Beyond Conceptual Nationalism”

- 국가문화와 초국가적 개념의 관계를 다루며, 시간적으로 내셔널리즘적 아젠다를 통한 지적 경향성에 대한 위험을 경고. Berrifsgeschichte가 상이한 개념적 지평을 연결할 수 있으나, “유연한 시기 구분과 개념적 분수령의 다원화”를 위해 “숙명적 안장기”의 관점을 버리는 것이 낫다고 주장. “공식적 제국”(식민지 체제를 수반한 언어)이 사라지고 “비공식 제국”(계급, 사회적 규약, 사회적 코드)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존속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 다룸. 개념사적 비교연구는 당대의 정치적 민감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함(EU의 민주적, 법적 배열의 의미와 가치, 계급분리 등) 코젤렉의 교훈은 개념이 과거와 현재경험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지평과 접목하면서 나타난다고 본다는 것임.

8장 João Feres Júnior, “With and Eye on Future Research: The Theoretical Layers of Conceptual History”

- 코젤렉은 “탈 형이상학적”인 공동체에 대한 관념이 있었으며 ‘공동체는 이래야 한다’는 규범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는 어떠한지’의 실재론에 입각하고 있었다고 봄. 공동체 개념은 “언어와 제도”를 통해 구체적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을 형성. 공동체 개념이 그러한 단위가 국민 국가 지평의 중심에 있는지, 초국가적인 측면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

11장 Faustino Oncina Coves, “Memory, Iconology and Modernity: A Challenge for Conceptual History”

- 기억, 도상학, 근대성과 연관된 개념사의 기능을 다룸. Neue Wache(잔악행위와 전쟁으로 인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앙기념관),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기념비 등 집단기억, 미학적 표상, 죽은 자에 대한 국가적 기념이 역사연구의 주제로서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고의 대중적인 수용”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지적. 죽은 자에 대한 시각화는 기억이 보여지는 제한적 범위의 조각적, 미학적 모티브를 드러냄.

13장 Javier Fernández Sebastián, “‘Riding the Devil’s Steed’. Politics and Historical Acceleration in an Age of Revolutions”

- “시간의 위기와 언어의 위기의 상호작용이 근대성의 특징이다.”(PCT 374). 18-19세기의 자료 분석을 통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정치, 사회적 개념의 영역의 변화와 어떻게 동시에 발생했는지 보여 줌. 혁명적 사건을 통한 시간의 “가속화”는 정치, 사회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개념의 확산을 반영. 혁명들은 의미론의 정상적 규칙을 벗어났고 의미의 완전한 변환을 야기하였으며, “사회적, 정치적, 법적 변환의 속도”를 바꿈. 프랑스 혁명 직후 일부에서 “새로운 시간의 신속성”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역사쓰기의 경험과 상호 연관되게 됨. 대서양 세계에서 새로운 당대의 역사적 시간과 연관하여 세속적 주장이 신학적 표지와 함께 공존하였으며, 진보(progress)와 섭리(providence)는 상호공약적인 개념이었다고 주장. 이러한 고려는 우리가 사건의 배열을 형성하는 우리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연관된다고 봄(예: 9.11부터 아랍혁명까지).

▷ 지성사 방법론의 비판에 대한 반박

- 캠브리지 학파의 스키너, 포록에 대해 ‘studied ignorance’ 또는 ‘empty Clichés’라고 지적.
- 개념사를 통해 “국민국가의 한계를 초월”하고 “지구적” 수준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궤적을 제안한다는 가정(PCT 15-16)이 조금 지나치게 오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의문을 던질 수 있음. 개념사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국민적 경계를 넘어선 역사적 작업을 시도하고 있음. 또한 개념사가 역사가들이 연구의 표준단위로서 세기의 시대구분을 사용하는 것을 ‘두 세기를 걸친 시간적 범위(말안장기)’로 대체하면서 습관적 시대구분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PCT 16), 다른 역사기술 접근 또한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 역사쓰기에서도 현실에 대한 이해의 틀을 역사화하려는 시도와 역사가만이 아니라 기존의 해석까지도 역사화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루어짐.
- 개념사가 역사가와 사회과학자들에게 더 성찰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주의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 저자(Cuttica)는 같은 용어, 조건,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상이한 역사적 탐구를 진행하는 여러 학파들에게 어떤 “모욕”일 수도 있다고 함.¹⁾
- 책에서는 텍스트의 저자의 의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에 대해 회의적이며, 여러 연구자들은 개념 자체의 다의성에 근거하여 탐구방법에 특권을 부여. 이런 시각은 컨텍스트에서의 관념(idea)의 정확한 설명이 지성사의 방법론적 관점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간과.
- 지성사자들은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를 행하고 있음. 정치이론들에 대한 논문과 지적 전기, 인종에 대한 서구적 관념과 유럽 문화의 젠더에 대한 탐구, 식자층의 성찰과 대중의 의식 등 포괄. 언어적 텍스트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까지 추적하려는 시도도 존재.
- 지성사는 개념, 사상, 텍스트를 특정한 (언어적) 맥락에서 저술가와 철학자, 정치이론가들 간의 토론, 논쟁, 대화 속에서 어떻게 형성, 발전, 사용되었는지를 연구함. 과거의 지적인 노력들이 불변하고 영원히 타당하다는 해석들을 거부. 학자 자신의 편견에 의한 해석들 및 원칙과 의견의 형성에 있어서 인간주체의 역할을 강조함. 또한 개념사 옹호자들이 특정한 역사적 환경으로부터 개념을 분리시키는 경향에 대해 비판. 개념사의 위험성은 정적인 망탈리테의 상징(emblem)으로서 텍스트를 보고, 주어진 사회적 구성의 표현으로 규정한다는 점임. 대신 지성사에선 텍스트가 대화 속에서의 상황적 표현이자, 관념의 교환에 의해 특정 논쟁에서의 주장과 반박의 지속적인 발생 속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왜 특정 언어가 특정한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 선택되었는지, 특정 작업과 이론, 역사적 텍스트가 그에 대응하는지 설명.
- 개념사, 지성사는 공통적으로 역사기술적인 상황으로서 관념이 단순히 ‘사회적 현실에 대한 수동적 성찰’이나 ‘외부적 본질’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거부. 코젤렉과 스키너는 역사가들이 당대의 개념, 문제를 통해 규정된 방식으로 저술들을 독해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

▷ 역사가의 역할

- 역사가는 골동품수집가(antiquarian)인가? 과거의 구출자(rescuer of the past)인가? 문화적 기호를 만드는 사람(a shaper of its cultural code)인가?
- 이는 실천(practice)에 대한 관점과 연관됨. 역사에 대한 새로운 독해를 제공하는 도구에 대한 생각이 필요. ‘근대 초’ ‘근대’ ‘탈근대’라는 범주사용부터 ‘isms’와 ‘-ologies’에 대한 사용은 과거의

1) 스키너 역시 반실증주의적인 태도로서 관념사에서의 더 역사적으로 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경험주의, 객관주의적 주장, 사실추구적인 시도에 반대하면서, 역사가들이 그들 자신의 의견과 역사적 상황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과거에 무엇이 실제로 정확히 일어났는가에 대한 불가능한 전달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함. 각주 8, p. 415 참조.

- 이론적 전경(全景, panorama) 부분을 포착하는데 도움을 줌. 이것들을 역사의 캔버스 안에서 발견되는 언어패턴의 다양함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음. 과거를 분석하는 것은 그것이 쓰여진 것인지, 전송된 것인지, 텍스트인지 문서인지, 공적/사적인지, 지식인/대중인지, 즉 역사적 경험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인지와 연관됨. 이 도구들은 역사연구를 촉진하는 합의의 산물이자 역사에 대한 제한적 접근을 지속하도록 하며 '단순화의 과정'과 '명확화와 이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 스키너의 시각에 따르면 지성가의 과제는 현재에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관념에 대해 아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근대성'이나 '급진주의'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방식을 탐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고 또 필요한 일임. 연구대상인 저자의 수사에 사용될 때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 지를 생각하면서 근대의 독자들에게 전달된 언어, 카테고리, 모델을 채택하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음. 즉, 어떤 isms나 범주(예: 근대)와 같은 것이 사용, 채택되었는지 알도록 하고, 그것이 과거의 단어에 맞추어서 사용되었는지에 관해 다양한 이론, 신념, 편견에 대해 이해하도록 함.
 - 21세기의 독자들에게 대한 소통적 지식제공의 역할. 과거를 포착하려는 모든 범주화/유형화의 시도는 시대착오 및 현재주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음. 지성사자들은 과거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갖는다는 점에서 과학자들보다는 예술가와 비슷함(Brian Young). 문학으로서의 관념사, 역사로서의 문학을 보면서 역사가들은 수사(rhetoric)에 특히 민감한 전문가여야 함. 역사가들은 소설가처럼 질서의 창조자(makers of order)로서 미학적으로 풍부하고, 지적 통찰력이 있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와의 조우의 장을 만들어야 함. 이러한 역사가들은 "훈련된 상상력"을 통해 친숙한 것과 새로운 것, 알려진 것과 모르는 것을 결합하는 일 수행.
 - 완전한 자료적인 역사기술은 "변화하는 특정한 것"의 "불변하는 재현"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험한 환상이며, "협소한 역사주의와 몰역사적인 것"의 만남임. 이와 반대로 내러티브적 기술로서 역사쓰기는 그 역사가가 자신의 역사성에 대해 알고 문화의 산물들을 다양하게 재해석하는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뒷받침된다. 즉, 비교정적인 '자아'와 '타자', 언어와 세계에 대해 다루는 것임. '우리' 역사가들은 적절한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를 탐구하면서 과거에 대한 지적인 대화를 착수해야 함.
 - 역사가는 근대적 해석적 틀을 통해서 과거로부터의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가"이기도 함. 이에 따라 '절대적' '급진적' '자유' 등 개념의 알려진 의미에 대한 논의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개념들이 '절대주의' '애국주의' '급진주의' '자유주의' 등의 학술적 정의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어야 함.
 - "eavesdropping)"과 "번역": 역사적 담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알려진 개념을 사용해야 하고, 저자들 본인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시대에 대한 암묵적 규칙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함. 겉으로 친숙한 것을 이질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과거에 대한 재구성은 특정 수준의 "창의성"을 통해 가능. 과거의 인간들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성찰을 다루는 것은, 그들 자신과 그 세계에 대한 주장, 원칙, 의견, 그들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미래에 대한 시각, 언어적 수사적 수단의 관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임.
 - 역사가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처럼 언어적 요소와 맥락적 배경을 둘 다 연구해야 함. 번역가로서 과거를 재경험하는 공감적 행위자가 아니라 전달(transmission)에 초점을 두고 과거와의 대화를 진행. 이를 통해 시대착오와 과거와의 간극을 피하도록 하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
 - 결론적으로 개념사, 지성사, 사회사가 모두 역사연구를 진행하는 적절한 도구이자 역사쓰기의 기술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상상력"의 재발견을 통해 각자 비교조적, 유연한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임. 역사가의 직무(Métier d'historien)? "Eavesdropper, translator, listener, the historian is no less a shaper/crafter of the cauldron of the past."